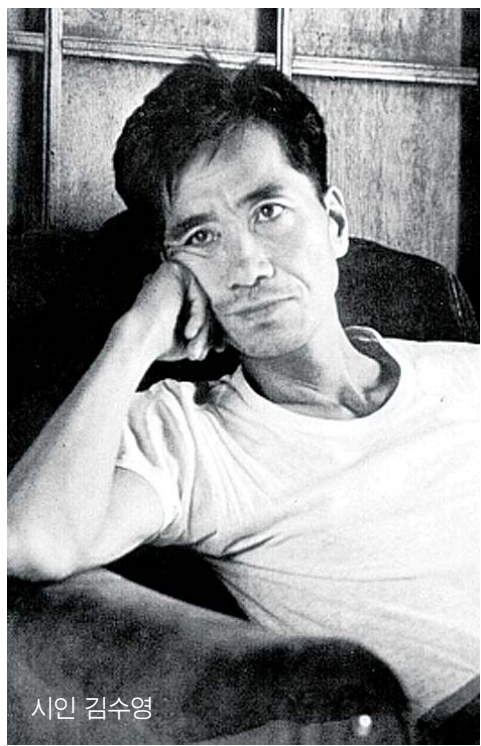


어떤 날들이 지금의 오늘을 만들었나

13년 전인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으로 양측 해군 함정간 교전이 발생했다. 이른 바 ‘제 1차 연평해전’이다. 이 교전으로 우리측 해군 장병 7명이 부상을 입었다.

44년 전인 68년 6월 16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으며 혁명은 왜 고독한가”를 되뇌던 한 시인이 버스에서 치어 죽었다. 그가 남긴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 드디어 올었다~’/로 시작하는 ‘풀’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압송되고 있는 국내 대표 시중 하나다.

오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살았던 오늘-이제 역사가 된 하루하루를 읽다’



시인 김수영

‘그들이 살았던 오늘’ 김형민 지음

는 저자 김형민씨가 1년 365일 역사 달력을 통해 ‘역사 속의 오늘’을 살펴본 책이다.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 역사 속 오늘을 의미있게 만든 주요 인물과 사건들을 답사하는 형식으로 풀어냈다. 인물·전쟁·건축·문화·예술·영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당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소개해 주는 방식이다.

도서관을 들락거릴 필요도 없이 ‘없는 게 없는’ 인터넷을 뒤지지만 하면 되는 세상이니 ‘참책 내기 쉽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만 하다.

하지만 내용을 훑어보면 “오늘의 역사, 그리고 나만의 역사,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과거 역시 탐과 발췌새와 거친 숨결이 배어있는 ‘오늘’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저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객관적 팩트 형식에 충실해 그 속에 담긴 배경과 의미를 사진 자료와 함께 서술하는 한편, 저자의 주관적 해석도 접할 수 있다. 눈물의 호남선 개통(1914년 1월 11일)과 설날을 앞두고 군중들이 일제히 개찰구로 몰리면서 계단에서 집단으로 넘어져 31명이 죽고 4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1960년대 서울역 호남선 압사 사건과 이승만 정권에 진저리치던 사람들의 희망을 한 몸

에 받던 신익희가 쓰러진 호남선에 얹힌 사연은

세삼 눈길에 간다.

‘무등산 타잔’ 박흥숙이 사형 집행(1980년 12월 24일)에 앞서 “세상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 국민이고 죄 없이 가난에 떨어야 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말입니다”라고 했던 최후 진술 내용은 지금 읽어도 와닿는 대목이다.

이미 존재하는 사실(史實)을 따라가는 데도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에서 역사의 새로운 속살을 접하게 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유명인물이나 대사건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나 아쉽게 잊히고 있는 사건을 다루려고 한 흔적도 엿보인다. “역사란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들이 살아낸 삶”이라는 말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누군가 이미 남겨놓은 흔적만 그대로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역사 속 그들이 살아낸 치열한 삶을 되돌아보는 것, 어떤 날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 남아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쫓아간다.

〈웅진지식하우스·2만2000원〉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1852년 3월 20일 ‘톨 아저씨의 오두막’ 출간

1969년 9월 3일 호치민 사망 공식발표

1940년 11월 16일 바르샤바 게토 설치

‘로봇 태권브이’를 기억하는가

‘한국 슈퍼로봇 열전’

페니웨이 지음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을 총정리한 책이다.

박영일 감독의 ‘황금철인’부터 ‘로봇 태권브이’ 시리즈, ‘전자 인간 337’, ‘황금날개 123’, ‘슈퍼 마징가 3’, ‘흑성로봇 썬더A’, ‘슈퍼 태권브이’, ‘꾸러기 발명왕’, ‘외계에서 온 우뢰매’ 시리즈 등 1970~80년대 슈퍼 로봇이 등장하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개봉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이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책이다.

〈한스미디어·2만4500원〉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저자 승재민씨는 페니웨이라는 필명으로 각 작품의 제작진·줄거리·캐릭터 디자인·해의 출시 DVD 정보·신문기사를 비롯한 관련 자료·작가 평가 등을 담았고 한상현씨가 일러스트 작업을 했다. 한씨가 새로 작업한 수십여장의 슈퍼로봇 일러스트도 볼만하다.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 2편

‘아프리카의 뿔’ ‘코끼리는 안녕?’

하상훈·이종상 지음

제1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수상작(상금 2000만원) 두편이 출간됐다.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은 문학동네 작가상·신인상 등을 통해 은희경·김영하·전명관·조경진 등을 발견했던 출판사 문학동네가 새롭게 제정한 상으로 올해 90권이 응모, 이번에 공동수상작이 나왔다.

하상훈(한양대 국문과 4년 휴학 중)의 ‘아프리카의 뿔’은 해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말리아의 소년의 이야기와 해적들에게 납치된 원

앙어선의 이야기

를 엮어간 작품이다

공동수상작인 이종상(한신대 국문과)의 ‘코끼리는 안녕?’은 새로운 스타일의 연애 소설이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낼 줄 모르는 민구 등 소설 속 주인공들과 드라마틱, 미라가 등장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문학동네·각권 1만1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조 달러 이상의 원조... 더 가난해진 아프리카

‘죽은 원조’

담비사 모요 지음

도와주는 게 능사일까. 지난 수십년간 아프리카에 이뤄진 1조 달러 이상의 개발 원조가 과연 아프리카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들었을까.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는 ‘죽은 원조’를 통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조 때문에 빈곤하다”면서 “원조는 개발도상국에게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재앙이 돼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는다.

저자의 이같은 비판은 ‘왜 사하라사막 이남의 빈곤 국가들이 1970년 이래 개발 원조금으로 3000억 달러 이상을 받아왔음에도 끝이 없어 보이는 부패와 질병, 빈곤, 원조 의존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



무대라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는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양허성 차관 및 증여가 부패와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유기업체제를 방해한다고 외친다.

원조금의 유입이 국내저축과 투자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것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아프리카 빈곤을 대폭 경감 시키기 위해서는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세계개발원장 진찰 ▲공공기관시설에 대한 대규모 직접투자 ▲선진국들의 공정한 농산물 자유무역 요구 ▲금융중개기관 육성과 소액금융의 확산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알파·1만5000원〉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영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한국사를 지배해온 주류 강단사학과 식민사학의 오류,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실명 비판해 눈길을 끈다. 저자 김상태는 고조선을 만주·한반도를 포괄하는 강력한 고대국가로 보는 ‘대고조선론’과 대동강 중심의 ‘소고조선론=식민지 고조선론’을 대비시키면서, 소고조선론에 집착하는 학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책보세·2만2000원〉

▲우리, 마을 만들기=마을 만들기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전문가 12인이 펴낸 국내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안내서다.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 영월 장릉마을 등 다양한 국내 사례가 담겨 있고 저자들이 활동하면서 접한 경험담과 체험을 통해 바랄만한 마을만들기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나무도시·1만9000원〉

▲당신은 소설한가? = ‘소설미디어가 바꾸는 인류의 풍경’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으로, ‘가짜’, ‘전염성’, ‘동시성’, ‘외향성’ 등 4가지 개념을 통해 소설미디어가 가지는 특성에 접근하는 한편, 소설미디어가 바뀌는 풍경을 분석하면서 왜 사람들이 집착하는 지 사회심리학적 이유를 파헤치고 있다. 아울러 소설미디어로 인한 증강인류의 탄생과 이에 따른 풍경을 소개하면서 조심스럽게 소설미디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풀어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7000원〉



▲친절한 음악책=음악 교사인 저자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펴낸 클래식 안내서. ‘알고 보면 친근한 음악 상식’과 ‘알고 보면 친근한 음악가들’, ‘알고 보면 친근한 명곡들’로 나눠 편안하게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풀어냈다. 책 곳곳에 영화나 드라마 속 음악 이야기나 클래식 공연에서의 에피소드 등도 친절히 소개하고 있다.

〈동음새김·1만2000원〉

▲말의 가격=출판인인 앙드레 쉬프랭이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거대 자본의 문제점을 짚어내면서 세계 곳곳에서 시도됐던 정책, 실험, 발상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저자는 대형 미디어 그룹의 경영자들이 미디어 고유 특성이나 개성, 공적 역할을 존중하지 않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열을 올리면서 미디어 자체 속성을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평론·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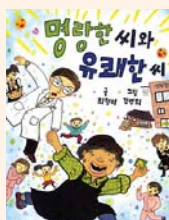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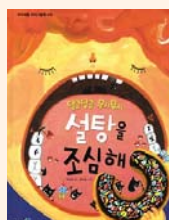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 =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주인공인 저자가 치열한 현실 한복판에서 다시 꿈을 자라게 하고 삶의 열정을 되살리는 지혜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엮은 책. ‘깊은 산속 웅덩이’라는 명상센터를 운영해온 저자의 경험과 통찰도 담겨 있다. 5컷 장에 걸쳐 70여편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을 기르는 방법을 전하고 있다. 〈해냄·1만3800원〉



▲어린이를 위한 유쾌한 세계 건축 여행=역사·문화·인물·과학 등 모든 것이 담긴 세계의 대표 건축물을 소개한 책으로 건축 전공자이자 ‘암스테르담 건축기행’의 저자인 배윤경이 글을 쓰고 김언경이 그림을 그렸다. 인류 최초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알타미라 동굴과 오두막에서부터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노트르담 대성당, 베르사유 궁전, 자금성,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등 다양한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다. 〈토트북·1만5000원〉

▲아구스타 이야기 타자편·투수편=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 리그를 빛냈던 투수와 타자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타자로는 홈런왕 베이브 루스를 비롯해 테드 윌리엄스, 헨크 애런, 요키 베라, 재키 로빈슨을 소개하고 있으며 투수로는 사이 영, 월터 존슨, 놀란 라이언, 그레그 매덕스, 마리아노 리베라를 언급하고 있다. 〈푸른물고기 주니어·각권 1만원〉

▲달콤달콤 무시무시 설탕을 조심해=우리



몸을 괴롭히는 달콤한 유혹인 설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책이다. 색깔과 쓰임에 따라 나누는 설탕의 종류, 설탕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 자연에서 얻은 설탕의 원료들, 연대순으로 알아보는 설탕의 역사 등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아이세움·1만원〉

▲엄청 좋은 빨간 자동차=프랑스 작가 스테파니 블레이크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책이다. 토끼 친구인 시몽과 페르디낭이 빨간 자동차, 초록 자동차, 파란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한울림어린이·1만원〉

▲명랑한 씨와 유쾌한 씨=이름난 의사가 되었는데도 늘상 화난 얼굴인 치료 원장 명랑한 씨와 가진 게 하나 없는데도 항상 웃는 얼굴인 구두병원 주인 유쾌한씨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묻는 창작동화다. ‘스티커 전집’, ‘행쟁이 선생님’ 등을 쓴 최형미 씨 작품이다. 〈드인돌 어린이·9500원〉

어린이 책꽂이